
**(주)성광벤드**

**(주)성광벤드**

『 50년 장인정신으로 성장한 세계 1위 벤드 전문기업 』



대표이사 안재일

하나의 기업을 만들어 50년을 버티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다. 하물며 단 한 분야에서 50년 간 탄탄히 성장하기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런데 지난 50년 간 격변의 대한민국 현대사를 밟으며 ‘벤드’ 단 한 분야만 파고들어 지금은 세계 1위의 기업으로 우뚝 선 중견기업이 있다. 부산의 대표적인 기업에서 이제는 세계 일류 기업으로 우뚝 선 (주)성광벤드(대표이사 안재일)가 그 주인공이다.

산업부문을에서 말하는 벤드는 배관과 배관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관이음쇠를 의미한다. 이 벤드는 직선으로 만들어진 각종 관들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곡선으로 연결한 이음매 부문에 들어가는 제품으로 산업설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품이다.

1963년 부산에서 수도파이프를 생산하는 조그만 공장에서 시작한 성광벤드는 지난 50여 년 간 창의성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관이음쇠 개발 및 생산에만

심혈을 기울여왔다. 오로지 관이음쇠 하나만을 위해 기업의 온 힘을 쏟아 부은 장인정신이 빛나는 기업이 바로 성광벤드이다. 한 우물만을 파온 결과, 성광벤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벤드생산기업으로 자리 잡게 됐다.

사업 초기 수도부품을 생산하던 성광벤드가 벤드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였다고 한다. 고철 수집을 위해 들어 온 폐선에서 벤드를 발견한 성광벤드 안갑원 회장이 사업성이 있겠다고 판단, 1971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 것이 시초였다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관이음쇠에 나사를 사용하고 있었다. 무모하다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도전정신과 노력으로 마침내 1973년 금형개발에 성공, 용접형 엘보 벤드 성형방법에 대한 발명특허를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만 하더라도 선진국의 제품을 수입해 사용했기 때문에 국내 제품의 활로가 없어, 현대중공업 등을 통해 명맥만 유지했다.

그러던 중 1978년 남해화학에 벤드를 공급하면서부터 국산제품의 우수성을 입증 받았고 이때부터 제품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나온 성광벤드는 벤드 제조부문에서 국내시장 점유율 50% 이상, 세계시장 점유율 10% 이상으로 전 세계 점유율 1위의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벤드라 해서 시장이 작을 것 같지만, 2013년 기준으로 국내시장 규모가 2,900억 원, 세계 시장 규모는 2조8,500억 원 수준에 달하는 소위 ‘알짜’ 시장이다.

성광벤드가 생산하는 벤드는 용도에 따라 용접용 관이음쇠, 고압용 관이음쇠, 플랜지 관이음쇠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재질에 따라서는 CARBON STEEL, STAINLESS STEEL, ALLOY STEEL, NON FERROUS STEEL 등이 있으며, 형태에 따라 엘로우(ELBOW)를 비롯, 티이(TEE), 리듀서(REDUCTER), 캡(CAP), 스텐드(STUB-END) 등이 있다.

성광벤드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석유화학 플랜트(60%), 조선 및 해양플랜트(20%), 발전설비(원자력 및 화력 발전, 20%)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되고 있다.

3,000여 종이 넘는 각종 벤드의 금형을 보유하고 있어 주문자의 어떠한 요구에도 적합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SK건설, 대림산업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며 내수시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1982년 이란의 가스라인 공사에 제품을 수출, 세계시장으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한 성광벤드는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출보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성광벤드의 이러한 성과는 기술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노사화합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매년 매출액의 5%를 기술개발에 투자할 정도로 신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성광벤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과감한 시설투자, 그리고 전사적인 품질혁신으로 실용실안 2건, 발명특허 5건, KS 표시허가, ISO 9001 인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확관식 관이음쇠(WON JOINT)는 기계류 부품소재 품질인증서(EM마크), 국산신기술 인정서(KT마크)를 획득해 보유하고 있다.



성광벤드의 주력 제품인 ELBOW, TEE, REDUCER (사진 위쪽부터).




성광벤드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설비들.

일찍부터 완벽한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유명한 ASME NPT 인증을 1993년에 이미 취득하였으며, 이후 1999년에 한국형 원자력 기술기준인 KEPIC 인증도 취득해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원자력산업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인력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경영진의 경영철학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 직원들 스스로가 자신이 맡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라는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1975년 노조가 결성된 이후로 한 건의 노사분규도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임직원 모두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성광벤드를 만들어 온 것이다.

독보적인 기술력과 노사화합으로 성광벤드는 밴드분야의 막대한 수입대체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미 2007년에 1억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성광벤드는 녹산공장에서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003년 이전과 함께 중동시장의 석유화학 공장건설의 붐으로 인해 매년 증설과 공장부지 매입을 진행, 이전 당시 2만2,000평이던 부지가 현재는 6만5,000평의 대형공장이 됐으며, 산업화의 대형화로 기계들 또한 대형화시켜 명실공히 세계 제일의 밴드 생산업체로 거듭났다.

성광벤드 안재일 대표이사는 “임직원 모두 부단한 연구개발과 품질혁신으로 소비자가 만족하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과 수출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앞으로도 더욱 합심해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대표이사는 “머지않아 8만 여 종의 밴드제품을 통해 새로운 기술개발로 국내를 넘어 세계 제일의 밴드생산 전문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연혁

- |      |                          |      |                             |
|------|--------------------------|------|-----------------------------|
| 1963 | 성광밴드공업사설립                | 2001 | KOSDAQ 상장                   |
| 1980 | 주식회사 성광밴드 법인설립           | 2003 | 본점 이전(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
| 1985 | 본점 및 공장 이전(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 2007 | 1억불 수출탑 수상                  |
| 1998 | 품질경쟁력 우수 50대 기업(국립기술품질원) | 2008 | 제3회 코스닥대상 최우수투명경영상수상        |
| 1998 | 노사협력 우량기업 선정(노동부장관)      | 2013 | 대한민국 코스닥대상수상                |
| 1999 | 2,000만불 수출탑 표창           | 2013 |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5만 톤 티프레스 준공식 |